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 박차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공사 6월 착공 계획 새뜰마을 사업 등 생활 밀착형 도시개발도

익산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사회적 여건 변화와 도시성장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15일 건설국은 이같은 세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공사가 올해 6월 착공된다. 신청사는 여성·아동·노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어울림 공간과 공공시설 간 그린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민친화적 신청사로 건립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청사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도비 17억원, 시비 50억원 등 총 1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

을 위한 생활SOC 확충, 공동체 기반조성, LH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어 동산동 월담지구, 모현동 옥창지구, 평화동 평화지구에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 공원 내 공동주택 5곳, 약 7천600세대를 건립하는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공공주택 분양 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대폭 상향해 청년이 살기 좋은 젊은 도시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익산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뛰어놀며 체험 할 수 있는 휴식·배움 공간, 문화 향유공간 조성 등 권역별로 특색 있는 공원 조성으로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

또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40

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600호), 농촌·도시빈집정비사업(152동) 등 분야별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시민 생활 공감 사책을 적극 펼친다.

시는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으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과 역세권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지정을 위해 제4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조성은 물론 물류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조례개정은 지난해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연무IC~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군도 23호선 확·포장 공사, 국도 27호선 서수~경장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착공을 추진해 교통물류 기반 조성을 위한 일지를 다진다. 이를 토대로 입체적 교통망을 갖춘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사통팔달 교통 도시로 도약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상과 보리 생육상황을 분석한 결과 웃거름 적정 시용과 제초제 처리 등 재배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겨울잠 다 잔 보리 웃거름 '지금이 적기'

군산 농업기술센터, 생육재생기 맥류 웃거름 주기 당부

군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상과 보리 생육상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맥류 생육재생기를 전년 및 평년과 비슷한 15일로 판단하고, 따라 웃거름 적정 시용과 제초제 처리 등 재배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육재생기란 보리가 안전한 월동을 위해 겨울철에 생장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가, 이른 봄에 기온상승과 더불어 다시 생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말하며, 봄철 웃거름 시용 시기의 기준이 된다.

생육재생기의 판단은 2월 초에 절단해 둔 보리잎이 1cm이상 다시 자랐거나 식물체를 뽑았을 때 연한 우윳빛의 새로운 뿌리가 2mm정도 자란 후, 평균기온이 0℃ 이상으로 3~5일간 지속

될 때를 기준으로 작물의 생장 상황과 날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보리 등 맥류는 생육재생기 판단일부터 10일 이내에 웃거름을 줘야 효과적이며 월동기간 중 추위와 잦은 눈으로 인해 발생 우려가 있는 포장에서는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서릿발로 인해 뜬 보리를 밟아주는 등의 재배관리 및 시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육재생기 전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독새풀은 생육재생기 이후에 페녹사프로프-피-에틸계통 제초제를 습기가 적은 상태에서 살포하되 2주 안에 중복살포를 금지해야 방제효과도 높다고 당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청년·인구정책 원광대 학생 고려있어야”

정현을 시장, 보건·의료인력 지역정책 유도방안 검토 지시

익산시가 원광대 입학생에 대한 100만원의 특별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15일 오전 열린 간부 회의에서 “그 간 익산시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 추진과정에 원광대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지적하

며, “최근 익산시는 지역 학생이 원광대에 입학할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타지역 학생은 익산으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광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해 우수 인재의 지역 대학 영입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대학

에서 배출하는 인재들이 우리 익산에 정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인 보건·의료 인력들이 졸업 후 익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들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광대병원 보건·의료인력 관련 지역정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문 농업인 양성 '익산 농업인대학' 인기

평균 경쟁률 2대 1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익산농업인대학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00명 모집에 약 200명이 지원해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치유농업 과정이 2.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온라인마케팅 과정 2대 1, 시설채소 과정 1.4대 1 등의 경쟁률로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올해 신설된 치유농업 과정은 지난 연말·연초 농업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개설강좌 설문조사 때 줄곧 수요 1위를 차지한 과정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과정이다.

치유농업은 기존 농산물 가공창업과 관광농업·체험농장 등의 6차 산업으

로써의 농업을 치유라는 이름으로 묶어낸 '치유'를 위한 농업적 활용' 전체를 총 망라한 개념이다.

면접은 오는 17일 치유농업 과정을 시작으로 23일 온라인마케팅, 24일 시설채소 순으로 다소 시차를 두며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위축된 만큼 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가 교육생 선발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청강생 제도를 통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코로나 블루, '도서관에서 극복해요'

익산,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17~18일 모집

익산시립도서관은 올 상반기에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립도서관은 열린시민교양강좌와 토요도서관학교 수강생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ksan.go.kr)에서 오는 17일과 18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6주간 운영된다.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다.

열린시민교양강좌는 그림책 지도사, 책놀이지도사, 독서항상 북큐레이션 등의 독서관련 강좌에서부터 다도와 예절교육, 어르신왕초보컴퓨터 등 취

미와 컴퓨터 강좌 등 총 30개 강좌가 편성됐다. 토요도서관학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동화책 주인공 만나기 등 총 21개의 다채로운 주제의 강좌가 편성됐다.

특히 주간에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캘리그래피, 다카사 진교실, 실용활용 컴퓨터 등 총 8개의 야간강좌가 마련돼 직장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은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면 수업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동네문화카페 감사 모임 군산시, 17일부터 2일간

군산시는 2021년 제1기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을 위해 15일부터 감사, 학습장소 모집을 필두로 17일부터 2일간 매니저 모임을, 오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학습자 모임을 진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동네문화카페는 연 37에 걸쳐 운영하는 1,398개 강좌 중 제1기 운영 예정인 460개 강좌이며,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상황 대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온라인 비대면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동네문화카페는 골목상가에서, 시민들의 학습과 취미활동이 융합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지난해에는 448강좌에 그쳤다.

시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기존의 방문 접수를 온라인 접수로 전환, 학습자 강좌 신청 및 감사 배정, 학습자의 주도적 성장을 위해 학습동아리 형태의 과정을 추가하는 등 맞춤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 청년들 사업설명회 성료

군산시 청년들(청년센터·창업센터)은 지난 10일 2021년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2021 군산시 청년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유튜브 동시접속자가 200여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소개된 주요 청년분야 프로그램은 청년정책통합안내,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회참여 역량강화, 청년활동 활성화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12개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특화된 청년 사업추진을 통해 청년 자립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